

올림과 잠김



소공동체 모임 길잡이

발행: 천주교 디트로이트 대교구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 발행인: 오승수 시몬 신부 Pastor: Rev. Simon, Seungsoo Oh
편집: 본당 편집회 | 홈페이지: <https://standrewkimdetroit.org/detroit/bbs/monthly-meeting/>

사순 제 4 주일 (2026년 3월 15일)

“여러분은 한때 어둠이었지만 지금은 주님 안에 있는 빛입니다.”(에페 5, 8)



124위 복자화, 새벽 빛을 여는 사람들 (3 x 2m)

2014 김형주 이멜다 그림

2014년 8월 16일 서울 광화문에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시복하신 윤지충 바오로와 123위 동료 순교자 (총 124위)의 영광을 기리는 초상화이다. 이 그림에서 복자들은 하느님 영광의 빛이 가득한 가운데에서 승리의 상징인 빨마가지나 순교의 상징인 십자가, 학자의 상징인 교회 서적 또는 동정의 상징인 백합을 들고 있다. 앞줄의 가장 나이 어린 순교자(이금봉 아나스타시아)는 화동이 되어 한국인을 상징하는 무궁화와 백합으로 엮어진 꽃다발을 들고 있다. 뒷편의 아기를 안고 있는 복자(이성례 마리아)는 아기와 함께 순교한 사실을 드러낸다. 김화백은 복자들의 천상 영광을 표현하기 위해 선구자로서의 이미지, 천상 복락의 이미지를 요한 묵시록에서 전하는 다섯가지 이미지를 활용하여 형상화하였다고 밝혔다. (묵시 7,9),(7,14),(7,15),(21,23), (22,14)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비추어 주시리라.”
(에페 5, 14)



1. 시작 성가

- (십자성호를 그으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 오늘 모임을 시작하면서, 셀라성가집 179 번 “묵상”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Scan me

묵 상

179

Fr.이태석

Em D Em C D Em

십 자 가 앞 에 꿰 어 주 께 물 었 네 오 - 오 - - - 오 추 위

5 G D C D7 G

와 굶 주 림 에 시 달 리 는 이 들 총 부 리 앞 에 서 피 를 흘 리 며 죽 어

9 G G7 C G D7 G

가 는 이 들 을 왜 당 신 은 보 고 만 있 나 고 눈 -

13 Em D G D D7

물 - 을 흘 리 면 - 서 주 - 께 물 었 네 세 상

17 G C G Am7 D D7

엔 죄 인 들 - 과 달 힌 감 옥 이 있 어 야 만 하 고 인 간

21 G G7 C G D7 G

은 고통 속 에 서 번 민 해 야 하 느 - 냐 - 고 조 -

25 Em B7 Em B7 C/E

용 - 한 침 목 속 에 서 주 - 말 씀 하 - 셧 - 지 사 -

29 C G D7 G D7

랑 사 랑 사 랑 오 직 서 로 사 랑 하 - 라 - 고 난 영 원 히 기 도 하 리 라 세

35 C G D C G D C D G

계 평 화 위 해 난 사 랑 하 리 라 내 모 든 것 바 쳐

2. 인사 나누기 및 출석 확인

- 참석한 반원들과 초대 손님이 있으면 인사를 나누고 반원들의 근황과 소식을 나눕니다.

3. 기도 지향 나누기

- 오늘 반모임에서 개인이나 공동체에 필요한 기도 지향이 있으면 나누어 봅시다.

4. 성경을 읽기 전에 바치는 기도

말씀이신 주님, 성령의 힘으로 제 마음을 열어 주시어, 당신의 말씀을 읽게 하시고, 당신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당신의 말씀을 느끼게 하시고, 당신의 말씀을 새기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5. 하느님 말씀

- 어느 분이 (혹은 한 분씩 돌아가면서) 다음의 성경 말씀중 하나를 읽어 주십시오.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앞을 보게 되어 돌아왔다.

(요한 9,1.6-9.13-17.34-38)

그때에 1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6 예수님께서서는 땅에 침을 뱉고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 사람의 눈에 바르신 다음, 7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어라.” 하고 그에게 이르셨다. ‘실로암’은 ‘파견된 이’라고 번역되는 말이다. 그가 가서 씻고 앞을 보게 되어 돌아왔다. 8 이웃 사람들이, 그리고 그가 전에 거지였던 것을 보아 온 이들이 말하였다. “저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이가 아닌가?” 9 어떤 이들은 “그 사람이오.”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아니오. 그와 닮은 사람이오.” 하였다. 그 사람은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13 그들은 전에 눈이 멀었던 그 사람을 바리사이들에게 데리고 갔다. 14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흙을 개어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 주신 날은 안식일이였다. 15 그래서 바리사이들도 그에게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다시 물었다. 그는 “그분이 제 눈에 진흙을 붙여 주신 다음, 제가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16 바리사이들 가운데에서 몇몇은 “그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므로 하느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오.” 하고, 어떤 이들은 “죄인이 어떻게 그런 표징을 일으킬 수 있겠소?” 하여, 그들 사이에 논란이 일어났다. 17 그리하여 그들이 눈이 멀었던 이에게 다시 물었다. “그가 당신 눈을 뜨게 해 주었는데, 당신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오?” 그러자 그가 대답하였다. “그분은 예언자이십니다.” 34 그러자 그들은 “당신은 완전히 죄 중에 태어났으면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드는 것이오?” 하며, 그를 밖으로 내쫓아 버렸다. 35 그가 밖으로 내쫓겼다는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서는 그를 만나시자, “너는 사람의 아들을 믿느냐?” 하고 물으셨다. 36 그 사람이 “선생님,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제가 그분을 믿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대답하자, 37 예수님께서서 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는 사람이 바로 그다.” 38 그는 “주님, 저는 믿습니다.” 하며 예수님께 경배하였다.

- 각자 마음에 와닿는 말씀 (최소 한 단어 / 최대 한 문장) 뽑는 시간을 1분간 가지겠습니다.
- 10분 동안 각자 선정한 말씀을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6. 성경을 읽은 후에 바치는 기도

말씀이신 주님, 말씀 안에서 새긴 당신의 사랑을 제 삶속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삶 속에서 당신을 믿고 당신께 기도하고 당신을 선포하며 성령이 주는 평화 속에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7. 말씀과 생활 나누기

- 그 말씀을 왜 선택했는지 또 그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어떻게 각자에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짧게라도 되도록 기도한 모든 이가 나누도록 합니다.)

지난달 반모임 말씀과 생활 나눔

-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마태 5,13) 소금이 세상에 꼭 필요하고 부패를 막아 주며 모든 음식에 쓰이듯이, 하느님께서 저희도 꼭 필요한 존재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RC3]
-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느냐?”(마태 5,13) 사순 시기 동안 소금의 역할을 다시 떠올리며 제 자신을 돌아보려 합니다. [NV1]
-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마태 5,13) 소금이 자신을 녹여 맛을 내듯, 이기심과 고집을 내려놓고 배려와 희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조금 더 가까워지는 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CT]
-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마태 5,13) 내 자신을 쓸모없는 존재라 생각할때도 있었지만 이 성경구절을 통해 세상의 소금 같은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NV2]
- “아무 쓸모가 없으니”(마태오 5,13) 큰 일을 해내지는 못하더라도, 누군가에게는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도움이라도 기꺼이 내어 놓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을 하며 이 말씀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TR3]
-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마태 5,14) 늘 어둠 속에서 빛을 찾으려 했는데, 내가 빛이라는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NV2]
-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마태 5,14) 스스로 빛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빛을 비추는 거울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빛의 주체는 주님이시고, 우리는 빛을 전하는 도구임을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RC2]
- “빛”(마태 5,14) 빛이라는 단어를 되새길수록 제 안의 빛은 어떤 모습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 빛이 제 안에도 머물러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깊이 자리합니다. [TR3]
- “등불은 켜서 함지 속이 아니라 등경 위에 놓는다.”(마태 5,15) 등불의 역할을 묵상하며,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도 신자로서의 모습을 드러내야겠다고 다짐하게 됩니다. [NV1]
-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비춘다.”(마태 5,15) 가족을 돌보는 삶이 반복되며 지칠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집 안을 밝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듭니다. [NV2]
-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마태 5,16) 사람들은 빛 자체보다 그 빛으로 비추어진 모습을 더 기억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주목받기보다, 내가 비추는 사람들이 더 빛날 수 있도록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하며 선택했습니다. [RC2]
- “너의 의로움이 네 앞에 서서 가고 주님의 영광이 네 뒤를 지켜 주리라.”(이사야 58,8) 의로움으로 용기를 내어 나아가면, 주님께서 뒤에서 도와주시는지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RC3]
- “너의 의로움이 네 앞에 서서 가고 주님의 영광이 네 뒤를 지켜 주리라.”(이사야 58,8) 희생하고 나눔을 실천할 때, 오히려 제 자신이 더 치유받고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RC3]
- “너의 의로움이 네 앞에 서서 가고”(이사야 58,8) 의로운 일을 해야 한다는 부담보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 의로움을 통해 하느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선택했습니다. [RC2]
- “너의 빛이 새벽빛처럼 터져 나오고”(이사야 58,8) 하느님 앞에서 제 가능성과 신앙이 억지스럽지 않게, 새벽빛처럼 자연스럽게 드러나 흘러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선택했습니다. [RC2]
- “나 여기 있다.”(이사야 58,9) 아직 기도하는 법도 서툴지만, 성당에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큰 위로를 받고 있음을 느낍니다. [RC1]

- "나 여기 있다." (이사야 58,9) 하나님께서는 좋을 때만 계시거나 힘들 때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지금 이 순간 'Now and Here'에 함께 계신다고 느꼈습니다. 현재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겠다는 마음으로 선택했습니다. [RC2]
- "그때 네가 부르면 주님께서 대답해 주시고"(이사야 58,9) 주님께 응답받은 적이 없다고 생각하며 원망하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 돌아보니 힘든 여정 속에도 하나님의 뜻과 응답이 담겨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RC1]
- "삿대질과 나쁜 말을 치워 버린다면"(이사야 58,9) 회사에서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거나 화를 낼 때가 있지만, 그 입장이 되어 보지 않고서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직 빛이 되기에는 부족하지만, 적어도 비난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싶습니다. [RC2]
- "명예와 상대질과 나쁜 말을 치워 버린다면"(이사야 58,9) 요즘 제 안의 화를 보게 됩니다. 사소한 일에도 쉽게 흔들리는 모습을 돌아보며, 이제는 내려놓아야 할 때가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 마음을 다스리고 여유를 배우고 싶다는 다짐으로 이 말씀을 선택했습니다.[TR3]
- "암흑이 너에게는 대낮처럼 되리라."(이사야 58,10) 이 말씀의 조건을 떠올리며 제 삶을 돌아보니 부족함이 먼저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이 약속이 제 삶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구절을 선택했습니다. [TR3]

8. 건의 및 기타 토의

- 우리 반에서 본당에 건의하거나 기타 토의할 사항에 대해 나눕니다.
- 참석 반원의 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득표를 받은 사항을 본당에 건의합니다.

9. 공지 사항

- 본당 공지 사항과 구역, 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10. 차기 모임 장소와 날짜 정하기

- 다음 모임의 장소와 날짜를 정합니다.

11. 마침 기도

- 본당 소공동체를 위하여 모두 다 함께 '소공동체 모임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성자께서 당신 이름으로 모인 사람 가운데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하셨사오니, 성령의 빛으로 오늘 모인 저희로 하여금 진리와 사랑으로 저희 마음에 은총과 자비와 평화를 풍부히 내려 주심을 체험하게 하소서.

완전한 일치이시며, 참된 사랑이신 주님!

오늘 이 소공동체 모임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배우고, 당신의 위대한 희생을 본받으며, 당신의 자녀들로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항구한 일치로 굳세어지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서로 형제 된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친교를 이루며 이웃에 봉사함으로써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저희 안에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반 모임에 참석한 모든 가정을 위하여 '가정을 위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에게 순종하시며 가정생활을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
저희 가정을 거룩하게 하시고 저희가 성가정을 본받아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소서.

가정생활의 자람이시며 모범이신 성모 마리아와 성 요셉,
저희 집안을 위하여 빌어주시어 모든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시며 언제나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다가 주님의 은총으로 영원한 천상 가정에 들게 하소서. 아멘.



12. 마침 성가

-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생활 성가집 셀라 67번 “그가 오신 이유”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Scan me

그가 오신 이유

67

김준영 글 / 임선호 곡

C D/C Bm7 Em7 Am7 D7 G

이 세상 - 가장 아 - 림 다 운 - 순 종 의 눈 물 -

5 C D/C Bm7 Em7 Am7 D7 G

은 세 상 - 다 시 빛 - 나 게 한 - 생 명 의 눈 물 -

9 C D/C Bm7 Em7 Am7 D7 G

그 가 이 - 땅 에 오 - 신 이 유 죽 어 야 - 살 게 - 되 고 -

13 C D/C Bm7 Em7 Am7 Am/G Dsus4 D

져 야 만 - 승 리 하 는 - 놀 략 고 영 - 원 한 신 - 비 - 지 으 신

17 G D/F# C/E G/D C G/B Am7 Bsus4 B7

그 대 로 회 복 시 킨 우 리 의 창 조 주 그 리 스 도 - 십 자 가

21 Em7 B7/D# G/D A/C# Am7 G/B C Dsus4 D

의 길 로 - 아 버 지 뜻 이 루 셧 - 네 그 가 이 땅 에 오 신 이 - 유 이 제 우

25 G D/F# C/E G/D C G/B Am7 Bsus4 B7 Em7 B7/D#

리 에 게 말 겨 진 그 소 망 그 사 랑 그 생 명 - 아 름 답 고 눈 부 신

30 G/D A/C# Am7 G/B C6 D7 G

십 자 가 의 - 길 우 리 가 - 이 땅 - 에 살 - 아 갈 - 이 유 -

- (십자성호를 그으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무엇을 찾느냐?” (요한 1,38)

‘맨 처음 하느님이 물음표를 만드시어 그것을 사람 마음에 심으셨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으신 이 피정 안내지의 그림, 곧 여인의 손이 감싸고 있는 향유가 담긴 그릇은 물음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 소중한 여겨 조심스레 열어야 할 봉인된 향아리, 아직은 닫혀있는 보물상자인 것입니다. 그 물음에 보물이 담겨있으며, 그 물음으로 계시가 열립니다.

다 같이 멈춰 서서 주님이 던지시는 물음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묻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즉시 답을 찾으려 달음질치지 말고 복음이 진실하게 건네는 물음에 잘 대답하기 위해 멈춰 섭시다. 물음을 사랑하고 좋아해야 합니다. 그 물음은 이미 계시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만나야 할지 몰라 미리 걱정합니다. 내 삶을 위로하고 이끄는 주님의 물음과 관계를 맺읍시다. 그 물음은 여느 대화와 달리, 여러분의 마음을 무장해제시키고 정답도 없고 결과에도 얽매이지 않는 열린 대화로 이끕니다. 물음표를 보면 낚싯바늘이 연상되지요. 물음표는 복음이 우리 내면에 던지는 낚싯바늘입니다. 그 낚싯바늘은 테르툴리아노가 말한 대로 ‘주님의 작은 물고기’인 우리를 환한 물밖으로 끌어 올려 회개로 이끕니다.

또한 물음표 모양을 보고 있으면 낚아채고 들어 올려 움푹달싹 못하게 만드는 독수리의 날카로운 발톱이 떠오릅니다. 우리를 궁지로 몰아가지요. 진리를 대할 때도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진리를 소유할 수 없지만, 진리에 사로잡힐 수는 있습니다.

다음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활을 여는 물음입니다.

요한이 세례를 주던 요르단강 건너편 베타니아에서 일어난 일이다...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그곳에 다시 서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눈여겨보며 말하였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양이시다.” 그 두 제자는 요한이 말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예수님께서 돌아서시어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무엇을 찾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라삐,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라삐’는 번역하면 ‘스승님’이라는 말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보아라”하시니, 그들이 함께 가 예수님께서 묵으시는 곳을 보고 그날 그분과 함께 묵었다. 때는 오후 네 시쯤이었다. (요한 1,28,35-39)

우리 가운데 계시고 모두의 친구이신 예수님께는 전해야 할 복음과 계시가 있습니다. 그 복음과 계시는 “무엇을 찾느냐?”라는 단순한 물음으로 시작됩니다. 그 물음은 길을 떠나는 모습을 한 하느님의 말씀으로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고 길을 찾아 줄 겁니다.

대답은 삶을 규정하지만 물음은 제안합니다. 규정은 결말을 내지만 물음은 그 이상의 것을 하도록 권합니다. 예수님은 믿음에 대해 교육하실 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기보다는 계속해서 물으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의 물음이십니다. 그분의 삶과 죽음이 우리에게 만물의 최종 목적을 말하도록 요구하며, 무엇이 행복한 삶인지 묻습니다. 대답 또한 그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찾느냐?”는 간단한 물음으로 우리에게 뭔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이끄십니다. 찾는 행위는 부족함이 채워지기를 갈망하는 공허함에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무엇이 부족합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성소에 응답하던 첫 마음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느님께 대한 열정이 부족합니까?

주님은 우리의 능력과 신학적 지식이 아니라 인간 본성에 대해 물으십니다. 이 물음 앞에서는 모두 똑같습니다. 이 물음으로 예수님은 확신이 서지 않아도 되는 권리, 모든 게 명확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 약할 권리까지 허락하십니다.

“무엇을 찾느냐?” 이 물음으로 예수님은 여러분의 지성, 의지, 감정이 아니라 원의로 향하십니다. 그분은 거룩한 손을 여러분 존재의 가장 깊은 곳으로 뻗으십니다.

“무엇을 찾느냐?” 이 질문은 ‘네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삶에서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원의를 복음화하기 위해 오십니다. 그분은 참된 스승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만족하지 않는 법과 “많은 사람이 겪는 고통”, 곧 하느님 나라에 대한 갈망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원의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 원의가 억눌리지 않도록, 줄어들지 않도록, 하찮아지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원의는 광야를 위한 만나가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포기나 희생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의무나 강제로 제단에 몸바치는 걸 바라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먼저 사람 마음에 들어가, 그 마음을 이해하고 무엇을 더 원하는지 알고 싶어 하십니다. 어떤 때 행복한지, 내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싶어 하십니다.

하느님과 사람들을 섬기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귀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귀 기울여 듣는 것과 귀로 듣는 것은 다릅니다. 귀로 듣는 것은 감각적인 행위이고, 귀 기울여 듣는 것은 내적인 행위입니다. 귀 기울여 듣는 것은 어린아이처럼 눈으로 경청하고, 사랑에 빠진 사람처럼 온전히 자신을 내어놓고 듣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무엇을 찾고 있나?’는 마음의 자물쇠를 여는 물음입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나?’와는 다른 물음입니다. 무엇을 하고, 하지 않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다시 말해 내 안에 무엇이 있고, 내 삶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가를 묻는 물음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자 스승은 누구인가?” 이 물음을 사랑하십시오. 누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결정합니까? 누구를 위해 걷고 있는지, 어떤 논리에 이끌리는지,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자주 떠올리도록 해주는 누군가가 있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모든 것은 귀 기울여 듣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키르케고르는 말합니다. “신앙은 존재하는 것을 향한 무한한 열정이다.” 삶에 대한 열정, 삶의 원천이신 분을 향한 열정입니다. 믿음, 희망, 사랑도 개념이 아니라 열정이며, 열정적인 행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파스칼은 말했습니다. “나는 하느님을 이야기하는 데 싫증이난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싶다.” 저는 마음으로 느끼는 하느님,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시는 하느님, 기쁨과 자유와 총만함의 하느님을 찾습니다. 하느님은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아름다우신 하느님을 갈망하고 관심을 갖고 세상에 전하는 것이 우리 몫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과 함께하시는 하느님을 찾습니다. 환하고 밝은 하느님 모습을 찾아드립니다.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느님 모습을 찾아드립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찾습니까? 누구를 위해 걷고 있습니까? 저는 제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시는 분을 찾고 그분을 위해 걸읍니다.

발췌: 복음이 나에게 물었다 — 에르메스 론키 지음

에르메스 론키 Ermes Ronchi

1947년 이탈리아 우디네 아티미스에서 태어났다. 마리아의종수도회 수도자이며 저술가이자 기고자이다. 로마 교황청립 마리아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파리대학 문리대학 가톨릭연구소에서 종교과학과 인류학을 공부했다. 마리아대학에서 후학을 양성하며 밀라노 지역 가톨릭 일간지 *Avvenire*에 복음 묵상 칼럼을 기고하고 있다.